

자녀·부모 적응 離婚 갈수록 증가추세 정책 서둘러야

가정복지세미나서 지적

한10.19

이혼이 갈수록 늘고 있어 이혼 예방 및 이혼한 어른과 그 자녀를 위한 가정복지 차원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가족연구회와 서울시가 지난 16일 공동 개최한 가정복지 세미나는 이혼에 따른 가족

로 추산되며 재판이혼보다 협의이혼이 4배 가량 더 많음을 고려할 때 실제 그 숫자는 훨씬 더 될 것으로 짐작된다. 이러한 추세는 이혼을 이제 필요악으로 보아 대책을 세워야할 때가 됐음을 경고하는 것이다.

한경혜 교수(서울대)는 이혼

부모교육 프로그램도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부모가 이혼한 아이들이 그 뒤 어떻게 적응하는가를 연구 발표한 정현숙씨(연세대강사)는 국민학생 이상 1백58명에 대한 조사를 통해 『함께 사는 부모의 재혼 여부와는 상관없

그의 조사에 응한 이혼 남녀들(남자 28명 여자 1백14명)은 부부관계 교육을 가장 많이 요구했으며 다음이 법률 상담, 자녀지도 프로그램, 사회의 긍정적 인식, 이혼 결과 교육 및 예방 상담의 순서였다. 그의 조사에서도 한경혜교수의 연구와 마찬가지로 이혼 후 생활복지 관련 요구는 상대적으로 낮고 이혼 예방을 위한 교육이나 상담에 대한 요구가 더 강했다. 한편 아이들은 이혼 관련 교육이나 상담이 필요하다는 데에 반수 이상이 공감을 표시했다.

그는 이혼 예방 및 사후 대책으로 부부관계를 향상시키는 각종 상담 및 교육 훈련 치료, 현 가정법원 조정제도의 활성화를 통한 평화로운 이혼 조정, 이혼 후 편부모 가족을 위한 양육 및 교육 보조, 이혼후 심리적 적응을 돕는 프로그램 등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吳美煥기자】

편부모아래 교육돕는 프로그램 개발을 부부관계상담 활성화...이혼예방책 절실

해체와 그로 인한 문제점 및 대책을 집중 논의한 끝에 이와 같은 결론을 내렸다.

1991년 통계청 인구통계연보에 의하면 인구 1천명 당 이혼 건수(粗離婚率)는 71~80년 10년간 0.48이던 것이 81~90년 0.94로 2배 가까이 늘었다. 1991년 현재 사법연감이 밝힌 재판이혼은 총 2만5백54명으로 이로인해 약 3만4천6백명의 아동이 한쪽부모와 살게된 것으

로 추산되며 재판이혼보다 협의이혼이 4배 가량 더 많음을 고려할 때 실제 그 숫자는 훨씬 더 될 것으로 짐작된다. 이러한 추세는 이혼을 이제 필요악으로 보아 대책을 세워야할 때가 됐음을 경고하는 것이다.

이 부모와 대화를 많이 할수록, 따로 사는 부모와 자주 접촉할수록 잘 지낸다』고 밝혔다. 그의 조사에서는 44%의 아이들이 이혼후 따로 사는 부모를 전혀 못만나는 것으로 파악돼 문제점으로 드러났다.

김순옥교수(성균관대)는 이혼한 사람들과 그 자녀가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을 바라는가를 조사해 이혼 가정에 대한 지원 대책을 제안했다.